

하나됨과 나눔

“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수)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개인별로 허리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공동체 직원 시무식이 1월 2일(금) 11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생활공동체 영성훈련이 1월 2일(금)-3일(토) 이틀 간 있습니다.
- 1월 4일(일) 4/4분기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 때 모아주신 예물은 따밥 공동체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 교육관 2층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52호

2025년 12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따뜻한 밥차를 다녀와서 2

성탄절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난 뒤인 토요일 오후, 성남시에 있는 “따뜻한 밥차(줄여서 따밥)공동체”에 다녀왔습니다. 따밥 공동체는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단체로, 최근 2년간 사랑방공동체에서 선물과 물품들을 기증해왔던 곳입니다. 차를 달려 도착한 곳에서 대표로 계시는 정진애 목사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늦은 오후임에도 한껏 시간을 내어서 이것저것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초기의 따밥 공동체는 5개 교회가 함께 참여해갔다면, 지금은 13개 교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비정기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밥 공동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려는 실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일에 도시락을 나누고, 필요하면 방문도 합니다. 딱히 전도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섬김의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몇몇 노숙자들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공공이가 있겠지. 틀림없이 자기네 교회에 오라고 할 텐데, 저기가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라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마음을 열고 도리어 도시락 포장을 돕는 분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영하 10도를 웃도는 이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노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두 분 정도가 임대 주택 지원을 얻게 된 사례가 있다면, 목사님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답답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주소지 인정을 받고,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신청했더니, 당첨됐던 것이죠. 힘겨운 삶의 무게 앞에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

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밥차 공동체에는 따밥홈이라고 부르는, 샤워와 세탁, 음식 조리가 가능한 공간을 새로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작은 규모지만 스마트팜의 시설도 갖춰서, 노숙인들이 직접 채소를 가꾸는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 자활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노숙인들이 따밥홈을 함께 이용하면서 청소도 하는 등, 공동체성을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만들어진 지 몇 달이나 되었고, 또 흔히 노숙인이 사용한다는 인식으로는 알 수 없을 만큼, 그 공간은 깨끗하고 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용의 쉼터로서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어느 사람이라도 그렇듯이, 따밥 공동체도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인연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게 체감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사랑방공동체 지체들이 곱게 포장한 성탄 예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꾸며진데다, 편지나 내용물이 적힌 쪽지가 곁에 붙어 있는 선물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시에 목사님은 작별의 순간까지도 감사를 거듭거듭 표하셨습니다. 그걸 보니 사랑방에서 전달한 성탄의 기쁨은, 이번에도 많은 이웃에게 미소와 힘이 되어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감사를 통해 기쁨과 따뜻한 온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
 <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12 122 / 116

기도 :

성경 : 마태복음 2:9-11

제목 :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시다

1. 내용: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다 (What)

<문단구분>

9~11절 박사들의 경배

2. 의미: 이방인들이 최초의 경배자이다 (Why)

- 1) 파르티안 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왔다.
- 2) 헤롯과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 3) 불확실한 길인데도 믿음으로 찾아왔다.

3. 적용: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자 (How)

- 1) 올바르게 반응할 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 2) 믿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자.
- 3) 복음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

안녕하세요. 늘푸른사랑방 박인하입니다. 이번에 글을 쓰면서 2025년에 있었던 일들과 그 안에서 느꼈던 점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글을 쓰는 덕분에 한 해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의 반 이상은 부대 안에서 보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2024년 3월에 입대했고, 올해 9월에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떠올리면 아무래도 군대에서 보냈던 시간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군 생활을 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지만, 전역하고 나서 돌아보니 금세 지나가 버린 느낌입니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대형 차량을 운전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고, 단체생활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시간도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 역시 단체생활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모든 사람과 성격이나 성향이 맞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몇몇 동기들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 심적으로 힘든 시간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고, 비록 크게 달라지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변화하려 노력하며 힘든 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2026년에는 자존감을 높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모두가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푸른사랑방 박인하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민수기 6 : 24-26
23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히브리서 8 : 12
30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마태복음 26 : 6-13
301
“ 이야기(Story)가 있는 여자 ”
정태일 목사
설교자
따뜻한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615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민아 장성아 / 봉헌위원 : 나송주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삶을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야기(Story)가 있는 여자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7>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말했으나,<8>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칭찬하셨습니다.<13>

이야기(Story)가 있는 여자.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6일전의 일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코앞에 닥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눅10:38>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믿었습니다.<요11:28> 마리아는 이야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야기(스토리)를 확인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는 이야기 있고, 그것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나의 간증을 소개하면 효과적입니다. 2025년을 결산하면서, 나를 기억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는 근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깃거리가 있는가? 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임상희 권사

복스럽게 맛있게

안녕하세요 이번 문서부 누룽지를 쓰게 된 이은서입니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멧쟁이 오기 전까지 많이 안 먹는 편인줄 알았는데 많이 먹긴하더라고요. 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많이 먹긴 한 거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 피자 2판에다가 마라탕까지 야무지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은지 너무 오래...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왜 많이 먹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입안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화나고 짜증날 때도 제 입에 뭐라도 넣어주면 그 화들이 가라앉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유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사실 밥이랑 국만 입에 때려 넣어주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요플레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학교에 항상 나오는 불가리스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불가리스는 항상 저한테 주더라고요? 너무 좋아여.

많이 먹어서 별명도 많이 생겼어요. 멧개를 이을 멧서! 진짜 어른 되서 할 거 없으면 먹방 유튜브나 할게요. 그리고 돼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그냥 많이 먹고 돼지하려고요. 근데 이제 진짜 조절 해야 하긴 해요. 이거 쓰려고 오늘 몸무게 잤는데 아 쉽지 않아요. 진짜 이제 조절하고 방학 때 다이어트 박세게 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멧쟁이 오기 전에 나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걸로 누룽지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 멧쟁이 이은서

졸업,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너무나 빠르게 나에게 다가왔다. 두려운가? 조금. 근데 그 두려움 안에 알 수 없는 설렘이 있다. 새로운 환경, 20이라는 어색함, 자유로움, 나의 버킷리스트, 책 읽기, 영화 보기 이 모든 게 나에게겐 너무나 큰 설렘이다. 사실 수능 때문에 억누르던 나의 모든 욕구가 터져 나오는 것을 설렘이라 표현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마 내년에는 다시 수능 공부를 할 것 같지만, 다시 도전한다는 것도 어쩌면 스무 살의 새로운 설렘이 아닐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된다.

멧쟁이학교를 떠난다는 것이 아쉽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빨리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다. 근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이 생활에 소중함이 생긴 것 같다. 물론 여전히 일요일에 등교하는 것은 싫지만 학교생활 중간중간 그냥 툭툭 이제 이런 시간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욱 그 순간들이 소중하다. 이런 추억들을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함께 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이 큰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 놓고 힘들 때마다 꺼내봐야지! 이런 행복을 준 멧쟁이학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벌써 이별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거겠죠? 그냥 시간이 나에게 이별을 던져주려나... 아무튼 이별보다는 작별을 건넬래요. 작별은 이별보다 낭만적이지 않나요?(헤린 감성 이해 바람) 어떤 26년을 보내든지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다음 연도 제 모토는 '즐기고 견디기'입니다. 26년도 살아서 봐요~~

6학년 조혜린 멧쟁이

정리

한 해가 끝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곰곰이 돌아봅니다. 올해 가장 좋았던 것은 얼마 전 꾸러기들과 요르단에 선물을 보낸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르단 난민들에게 정성껏 보낸 간식과 카드를 전해주시는 사진과 영상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셨는데 멀리서만 느껴지던 선교에 현장에 작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바뀌었나 생각해보니 손님용 이불을 빨고 정리하는 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에는 장미숙권사님과 함께 손님용 이불을 준비와 정리만 했는데 올해는 혼자서 커버를 다 벗겨서 깨끗하게 빨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연속기도회 끝나고 테이블 커버, 매트 커버, 담요도 다시 다 빨아서 이번에 싹 정리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갑니다. 힘은 좀 들지만 우리 장미숙권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꾸러기학교가 25년 일정이 끝나고 교사 피드백을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유독 제가 심하게 화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혼자서 속앓이도 많이 했는데 제가 과부화로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10년간 살면서 학교일, 공동체일, 교회일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데 매년 일이 많고, 힘들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못 받아들였는데 처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안 괜찮아서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지냈습니다. 제가 고집에 세서 피드백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쉽다 가지고, 스스로를 잘 돌봐야겠습니다.

25년을 정리하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은혜의 해여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일 속에서 나를 인도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83장, 95장

성경 : 에베소서 2:1-10

말씀 :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중보기도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 복음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특히, 전쟁 중인 나라에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돌봄 사역>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섬기며 사랑이 넘치는 나눔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성탄전야예배, 성탄절 모두 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2) 종무식을 위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종무식을 하면서 생활공동체는 2025년을 업무적으로는 마무리하며 쉬는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무식에서 12월 생일 축하도 하고 선물을 뽑아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서 풍성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동파관리를 하면서 공동체를 살피고 돌보는 일에는 힘이 없습니다.

송구영신예배와 시무식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영성수련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